

Metallica 곡 ‘The Call of Ktulu’ 분석

이종웅, 조태선*

청운대학교 대학원,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e-mail:pluto7426@naver.com

*entheos@chungwoon.ac.kr

Analysis of ‘The Call of Ktulu’ by Metallica

Jong-Woong Lee

Graduate School of Chungwoon University

*Dept of Applied Music Chungwoon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에서는 Bass 연주자들이 다양한 연주기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대에 들어서 대체적으로 Metal음악은 대중들에게 ‘시끄러운 음악, 듣기 불편한 음악’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Metal이라는 곡을 자세히 분석하여 들어보면 그 안에서 다양한 화성학적 기법이나 멜로디가 보이며, 클래식에서 사용되는 기법들을 발견할 수 있다. 빠른 템포의 Metal만 존재하는게 아닌 느린 템포의 서정적인 곡도 있으며 악기들의 다양한 이펙팅 사운드도 들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Thrash Metal 밴드 ‘Metallica’의 2집 앨범 수록곡인 ‘The Call of Ktulu’를 분석하였다. 평소 저 음역대를 받쳐주는 Bass의 다양한 멜로디 라인과 이펙팅 시스템의 사용 예시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서 Bass로도 멜로디를 만들어 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 서론

밴드 Metallica는 이전에 나왔던 Thrash Metal밴드와는 달리 획기적인 사운드, 곡의 구성, 사운드 메이킹으로 수많은 이들의 인식이 되었으며, 특히 Guitar의 멜로디 라인과 화성학적 구성으로 인하여 메탈 곡은 단순하다 라는 편견을 깨고 다양한 곡을 발매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돋보이는 점이 있다면 바로 연주곡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전에 있던 메탈밴드들에게도 연주곡이 없었던건 아니지만 Metallica의 연주곡은 특히나 클래식 연주곡을 떠오르게 하는 다양한 구성과 멜로디 메이킹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명을 주었다.

이에 밴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연주곡을 작곡할 때 어떤식으로 작곡 방향을 잡으면 좋을지, Metallica의 연주곡은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하여 악보를 통하여 연구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본론

Metallica는 앨범마다 1트랙씩 연주곡을 구성하였는데 여

러 연주곡들이 있지만 이번 논문에서는 1894년에 발매된 2집 앨범 ‘Ride the Lightning’의 수록곡인 ‘The Call of Ktulu’를 서술할 예정이다. 이 곡은 미국의 소설가인 Howard Phillips Lovecraft의 크툴루 신화를 모티브로 작곡되었다. Lars Ulrich, James Hetfield, Cliff Burton이 작곡에 참여했으며 현재 밴드 ‘Megadeth’의 Dave Mustain 또한 작곡에 참여하였다. Dave Mustain이 제작한 Riff가 사용되었는데 팀내 불화로 Metallica에서 탈퇴 후 Megadeth를 결성하였으며 이 Riff는 Megadeth의 4집 앨범 ‘Rust In Peace’ 수록곡 ‘Hanger18’에 변형되어 사용되었다.

8:52초의 긴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는 연주곡이며 특히 베이스는 디스토션, 와우, 리버브등의 이펙팅을 하며 깊고 무거운 톤을 내었으며 슬라이드, 해머 온, 풀 오프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곡의 분위기를 장엄하게 내어주는데 한 몫을 담당했다. 단순히 리프를 반복하는게 아닌 처음부터 끝까지 솔로 섹션이 들어가 있다. 솔로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Bass 연주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솔로는 기본적으로 Minor Scale이 사용되었지만 일정 부분에는 Phrygian Mode Scale을 사용하였으며 아르페지오도 사용되었다.

2.1 인트로



[그림 1] Intro Bass

위 [그림 1]은 ‘The Call of Ktulu’의 인트로 부분에 속한다. 인트로는 클린톤을 사용한 기타 Riff에 기타의 코드 진행에 따라 하행 베이스 라인을 연주한다. 인트로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이므로 Clean Bass tone에 A-E-Eb의 개방현을 사용한 코드진행으로 연주한다. 베이스 라인은 A minor기를 기본으로 두고 연주하였다.

2.2 Verse



[그림 2] Verse Bass

인트로가 끝남과 동시에 A 노트로 Cresendo기법을 사용하여 분위기를 고조시킨후 Verse의 진행으로 진입한다. 기본적으로는 계속 반복되는 Riff를 사용하지만 하강 패턴과 상승패턴을 번갈아가며 사용하며 연주를 한다. 특이한 점은 베이스가 단순히 근음만 받쳐주는 것이 아닌 보컬멜로디의 역할 또한 수행을 한다. 슬라이드, 해머 온, 풀 오프 기법도 사용되었으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Distortion과 Wah 이펙팅이 사용된다.

2.3 Chorus



[그림 3] Chorus Bass

코러스에선 단순한 베이스 라인을 사용하며 기타의 Riff와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 이때 베이스에는 Overdrive를 사용하며 묵직한 사운드를 낸다. 또한 타악기적인 느낌을 주기위해 Palm Mute와 개방현의 조합을 사용하기도 한다.

2.4 Bridge



[그림 4] Bridge Bass

Bridge에서는 Verse와 코드진행은 동일하나 베이스의 솔로를 담당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디스토션과 와우 페달을 이용하여 빠른 속주를 진행하는데 Arpeggios, Bends, Harmonix, Tapping을 사용한다.

2.5 Outro

Bridge진행이 끝난 후 Outro로 진입하게 된다. Intro의 코드 진행과 똑같이 반복을 하지만 약간의 변형이 있다. 기본적인 Intro Riff에서 Bridge에 사용된 솔로의 일부 Melody를 사용하는 보다 복잡한 Bass Line을 연주한다. 또한 Slide, Vibrato와 이펙팅을 추가하여 보다 드라마틱하고 강렬한 사운드를 만들어 낸다. Outro는 Fade-out으로 끝나며 듣는이들에게 긴장감과 여운을 남긴다.

3. 결 론

본론에서 서술한 그림 자료 및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단순히 메탈밴드라고 해서 반복적인 리듬, 코드만 사용하고 난잡한 기타 솔로를 사용한다는 선입견을 깰 수 있을 만큼 다양한 화성학적 기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베이스라는 악기가 단순히 저 음역대를 받쳐주는 악기가 아닌 또 다른 멜로디 구성을 하는 악기가 될 수 있으며 베이스에 이펙터 페달을 사용했을 때 이질감이 느껴지는가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로 사용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문학 작품을 감상한 후 독후감의 느낌으로 본인의 느낌을 재해석하여 작곡을 하고 긴장감을 필요로 하는 장르의 문학을 표현하는데 Metal이라는 장르가 매우 잘 어울린다는 느낌을 받았다.

본 연구를 통해 Metal 음악에 있어서 Bass의 역할이 단순히 그 음악을 받쳐주는게 아닌 또 다른 형태의 멜로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Metallica, 「Ride the Lightning」, Polygram Music Publishing Ltd. , Vertigo, 1984년

[2] Songfacts, Orion,

<https://www.songfacts.com/facts/metallica/the-call-of-ktulu>(2023년 3월 13일)